



첫번째 회 하늘의 사람, 박태선 장로님을 따라 전도관으로 들어가다

성경말씀과 목사의 말씀이 서로 달라 고민하던 중 전도관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후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다

교회 목사님은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하고 성경에는 눈뜨고 보고 알아야 한다고 써어 있으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난감했고 더욱 더 헛갈렸다.

그러나 전도관 박태선 영모님께서는 핏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면 천국이 이뤄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은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박태선 영모님으로부터 안찰을 받게 되면 몸 전체가 시원해지면서 언제 몸이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개운해졌다.

일제시대 유복한 가정환경 속에 자라났다

나는 경기도 장단 진덕면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위로는 큰 오빠가 있고 그 밑으로 언니 둘, 그리고 나, 밑으로 남동생이 있다. 장단은 개성 밑에 위치해 있는데 나의 부모님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진덕면에서 제일가는 갑부이었다. 그래서 소작농들이 지은 쌀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부모님께서 갑부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다. 나는 국민학교를 나와 여학교에 시험을 쳤지만 합격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큰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님 덕에 일제 강점기였지만 일본 중앙대학을 나와 전매청 서무과장까지 지냈다.

해방이 되고 남북의 대립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 생활하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해방되고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대립하자 장단이 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던 우리 식구들은 쫓겨났다. 장단 진덕면에서 내쫓기자 아버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병이 나쳤고 그해 그만 돌아가셨다. 나는 큰 오빠가 전매청 서무과장으로 관사에 있었기 때문에 관사로 들어갈 수 있었고 어머니는 장단 근처에 방을 얻어 기거하셨다. 그렇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나의 몸과 마음은 어느덧 피폐해져 갔다. 그때 내 나이가 20살쯤 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던 중 하루는 길을 가다가 몸이 아파서 앉아 쉬고 있었다. 근데 어떤 아줌마가 다가와서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를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였다. 내 몸이 아파 혹시 죽어 지옥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지옥까지 않으려는 불안감에 교회에 나간다

새벽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단상에서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여 성경을 보다 보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네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하나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 라는 구절을 나왔는데 단상에서 목사는 '천국이 저 하늘 공중에 있으며 예수의 공로로 그 천국에 들어간다.' 고 말하니 마음이 헛갈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내가 사는 곳에 심방을 오셨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 하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집사님, 너무 그렇게 알고 하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그냥 믿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말을 막아버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큰 궁금증이 있었지만 할 수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갔다.

그때도 새벽예배 중 목사님이 성경을 자주 보라고 하여 자주 보다 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데로 따라가면 다



초창기 박태선 장로님의 천막 집회 때 모인 신자들

구덩이에 빠져 죽으리라' 하는 구절을 발견했다. 목사님은 모르고 가야 된다고 하고 성경에는 눈뜨고 보고 알아야 한다고 써어 있으니 나는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난감했고 더욱 더 헛갈렸다.

성경과 목사님의 설교의 불일치로 고민 중 전도관 부흥집회를 만나다

그렇게 마음 한 구석에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중 하루는 길을 가다가 어떤 부흥집회를 하는 곳에 참석하게 되었다.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찬송을 우렁차게 부르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묘하게 나의 마음이 이끌렸다. 더군다나 새벽예배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낮에 예배를 본 숫자 그대로인 것처럼 새벽예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다. 교회에서는 젊은 여자는 나 혼자밖에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 좋았다. 알고 보니 그곳이 바로 전도관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박태선 영모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궁금증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버렸다. 교회의 목사님이 말하던 천국의 소재,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성경 속의 천국의 소재 즉 마음속에 천국이 이뤄진다는 말씀이 서로 달라

고민했었는데 박태선 영모님께서는 핏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면 천국이 이뤄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은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박태선 영모님으로부터 안찰을 받게 되면 안찰 받을 때는 배가 그렇게 아프더니 받고 나서 조금 있으면 몸 전체가 시원해지면서 언제 몸이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개운해졌다. 그렇게 안찰을 받아 핏속의 죄가 소멸되니 건강해지면서 박태선 영모님이 진정 하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당시 큰 오빠는 내가 빨리 결혼하기를 재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신앙촌 건설대에 들어가 일하다

그래서 아예 전도관 건설대에 들어가 버리기로 결심하고는 큰 오빠 댁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건설대 즉, 소사 신앙촌 건설대에 입주하여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물을 짚어지고 나르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로 힘들어서 어떤 때는 저절로 비명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다. 게다가 잠자리도 좋은 잠자리가 아니라 한 방에 5~6명 정도 잤는데 나무를 때는 야캄목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처럼 어린 사람은 차

가운 뒷목에서 자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추워서 잠은 오지 않고 겨우 내 몸을 스스로 비벼서 방바닥이 녹게 만들었어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 생활을 수년간 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놀라운 증거들과 하늘의 사람 박태선 영모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날은 물을 캐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돌에서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나도 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다. 정말 놀랍게도 감람나무 잎사귀가 선명하게 돌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소사야말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분명하구나 하고 확신했다.

몸이 아파 영모님 숙소주위를 배회하자 영모님이 아시고 나와 안수를 해주시다

신앙촌에서는 박태선 장로님이 장사를 시켰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사를 다녔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바람이 났다. 그러던 어느날 장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몸을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팠다. 신앙촌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나의 발은 자연

스럽게 영모님이 계신 숙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모님을 뵈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영모님 숙소 주위에서 왔다갔다만 할 뿐이었다. 마음속으로 영모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성거리기를 얼마나 했을까. 놀랍게도 영모님이 숙소에서 불쭙 나오시는 게 아닌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영모님께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재빨리 내 앞으로 오시는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영모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라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내 머리 위로 안수를 몇 번 해주시고는 다시 숙소로 재빨리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아팠던 몸이 완전히 나아버렸고 낯빛이 몸이 가벼워졌다.

정말 지금도 그 때를 돌이켜보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영모님께 알려드리지 않았건만 하늘의 사람인 영모님께서는 내가 밖에서 영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덕소 신앙촌에 입주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백부장까지 되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세월은 흘러갔고 영모님께서는 느닷없이 제2 신앙촌인 덕소 신앙촌을 건립하기 시작하셨다. 소사 신앙촌에 있었던 많은 형제들은 덕소 신앙촌에 입주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를 데 없었다. 나 또한 모든 전체를 팔아 입주할 위해 저축을 하였고 결국 2차로 입주에 성공하게 되었다. 물론, 왜 잘 나가던 소사 신앙촌을 놔두고 덕소 신앙촌 건립을 서둘러 한 이유가 둘째 해와 이긴자의 출현 때문임을 승리제단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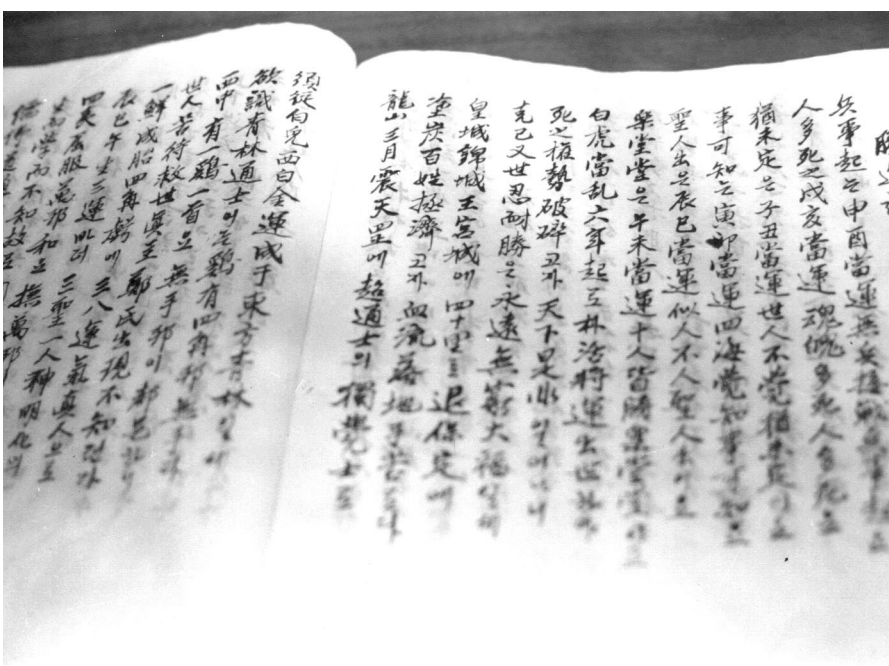
그 당시는 덕소 신앙촌에 입주하는 것이 신앙촌 식구들로서는 지상 최대의 과제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입주했을 당시 나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래서 더욱 분발했고 결국 덕소에서 백부장까지 지낸 정도로 나의 열정은 대단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계속).* 조남익 권사/본부제단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였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경고하셨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죽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아담, 해와)이 생활하는 공간인 에덴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곳에 두었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피조물이 어떻게 내버려두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는 죽는 과일인 선악과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이므로 에덴동산 시절에 그 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담, 해와)의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여호와라는 자존자(自存者)라는 뜻이며 그 삼위를 구성하고 있던 아담과 해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죽게 하였다' 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조인 '삼위일체'가 깨어져 하나님의 성(城)인 에덴동산은 무너졌고 그로 인하여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숭고하고 아름답던 삼위일체의 모습이 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남자(아담)와 여자(해와)로 타락이 되어 오늘날에 있게 된 것이다. 정감록의 백미인 "격암유록"은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天地相爭時때에 天神이地魔를

Table with 2 columns: Original text and Transliteration. It lists various concepts related to the fall of man, such as '천지상쟁혼돈시' (Heaven and Earth in conflict) and '천지반복' (Restoration of Heaven and Earth).

해석: 천지가 서로 싸우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이긴 까닭에 천지가 바뀌어 지상권을 잃어 귀신세상이 되었으니 신귀(神鬼)라 하지 못하고, 남자가 양(陽)이고 여자가 음(陰)인 계분명하지만 음귀가 발동하는 이 세상인고로 여자에게 남자가 패하여 권리를 잃고 귀신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저서 '양음'이라고 못하고 '음양'으로 되었으며 남자가 바깥이고 여자가 안이 분명하지만 내외로 부르게 된 것일세. 이상은 도부신인(桃附神人)에 실린 내용이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격암유록

그러면 성경은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위에 있고 하나님은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 2)." 성경에는 이 기록내용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天神)과 마귀(地魔)의 투쟁 기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내용만으로도 "격암유록 도부신인편"의 기록 내용의 덕분(?)으로 어렵잖이나마 엿보기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 사건 이후 지금까지 사람은 계속 죽어왔으며 그때 먹었던 선악과의 독(毒)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 속에 남아 있는 게 틀림없으니 그걸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후손을 모두가 죽어가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오늘날 우리 인간의 전신(全身)은 하나님이었

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의 상태로 쪼개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타락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선악과는 인간 속의 어디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찾아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원수를 죽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찬란한 성(城)인 에덴동산을 잃어 버렸으므로 반드시 다시 찾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놓이셨다. 성경은 바로 에덴동산 회복을 위하여 타락된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 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 놓으셨던 '에덴동산 회복을 위한 작접계획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가 존재하는 위치와 진면목을 마귀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넌지시 알려 놓은 것이다.

성경내용에서 <선악과>를 찾을 수 있다. 딱히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천번만 번 읽어봐도 찾지 못한다. 그런데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역시 구세주의 말씀 덕분임을 밝혀둔다. "욕심을 부리므로 죄가 되고 그것이 성장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뜻인데 욕심을 부리는 존재가 바로 '나' 라는 '주체의식'으로서 욕심이 죄가 되면 주체의식은 욕심의 뿌리가 되니 바로 원죄(原罪) 즉 선악과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나' 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원죄요 선악과인 것이다." 이제 <선악과의 정체와 인간과의 관계>가 밝혀졌다. 선악과는 바로 인간의 주체의식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죽음의 영이기에 아담과 해와 이후로 여태까지 모든 인간을 죽여온 마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뿌리요 원죄가 되는 선악과'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그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 방법이 역시 조희성 구세주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서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와 "반대생활"이다.* 정종현 승사/본부제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약 1:15)" 이

Advertisement for '승리신문' (Victory Newspaper) featuring a green background with white text. It includes the phone number 103747-02-134421, subscription information, and a message about the '영생의 세계' (World of Eternal Life).